

본 자료는 협회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향분석실 | 전보희 수석 연구원 02-6000-5188, bh.jun@kita.or.kr

김규원 연구원 02-6000-5106, gw.kim@kita.or.kr

무역의 지평 확대,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 제 61회 무역의 날 기념 -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11월까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8.3%)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성장을 이끌며 최대 실적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적자가 올해 흑자로 돌아섰으며 흑자 규모도 역대 다섯 번째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10월 기준(전년동기비), 주얼리(159.6% ↑), 전산기록매체(88.5% ↑) 등 10대 고성장 품목이 전체 수출 증가율(9.0%)을 크게 웃돌며 수출을 견인했고, 아세안(5.2% ↑)과 남미(18.4% ↑)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시장 다변화에서도 진전을 보였다. 아울러 미국 내 하이테크 제품 점유율 순위도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9월까지 8위로 상승하며 의미 있는 결과를 거뒀다.

이 같은 수출 호조로 한국은 올해 9월까지 세계 수출 순위 6위를 달성했으며,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9.5%)을 기록했다. 또한, 1~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3%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이 전체 경제성장(2.3%)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내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1. 전방위적 성장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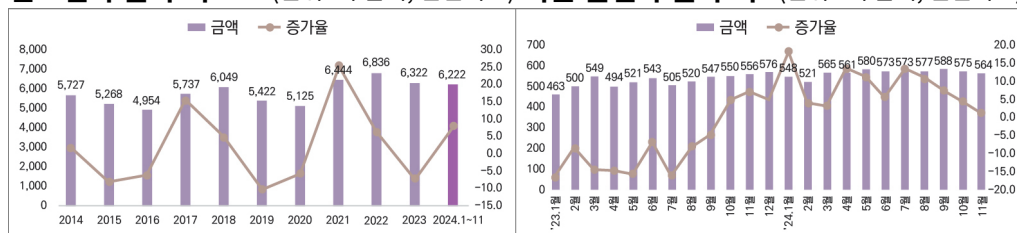
▶ 올해 수출은 4년 연속 6,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

- 중국발 경기 둔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올해 수출은 11월까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8.3%)를 기록

- 2023년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2023년 5월 이후 19개월 연속 월 수출 500억 달러를 상회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 우리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연도별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비%) 최근 월별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비%)



주 : 2024년은 추정치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반도체와 자동차가 최대 실적에 도전하며 수출을 이끈 가운데, 화장품, 변압기 등도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특히 반도체 수출은 2022년 수출액 1,292억 달러 및 정부 목표치 1,3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

* 역대 반도체 수출 실적 순위(억달러) : (1위, '22) 1,292 (2위, '21) 1,280 (3위, '18) 1,267

- 2024년 10월까지 누적 1,150억 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동기간 실적 1,117억 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연말까지 1,3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

- 자동차도 3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에 도전하며 10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 2022년 8년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한 이후 지난해에도 31.1% 증가, 올해는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심으로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며 선방

- 그 밖에 화장품, 변압기, 전선 등도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주요 수출 품목 중 올해 최대 실적 기대 품목(MTI 3단위 기준)

(단위 : 억달러, %)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반도체 장비	전력용기기
수출액(1~10월)	1,150	591	84	71	59
(증가율)	(47.2)	(2.0)	(20.0)	(27.9)	(8.2)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대중 수출도 2년 만에 반등하여 양국향 수출이 동반 성장세로 전환

- 미국 경기 회복, 자동차 수출 호조,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대미 수출은 1~10월 기준 사상 최대인 1,055억 달러를 기록하며 8년째 상승세를 지속

* 대미수출액 및 증가율(억 달러, 전년동기비%) : ('17) 686, 3.2 → ('21) 959, 29.4 → ('24.1~10) 1,055, 12.9

- 대중수출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수입 수요 개선 지연으로 지난 2년간 감소해 왔으나 올해는 글로벌 IT경기 반등에 힘입어 플러스로 반전

* 대중 수출액 및 증가율(억 달러, 전년동기비%) : ('22) 1,558, -4.4 → ('23) 1,248, -19.9 → ('24.1~10) 1,100, 7.2

▶ 올해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역대 5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무역수지는 건조한 수출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지속

* 월별 무역수지 동향(억 달러) : ('23.6월) 12, (9월) 37, (12월) 45, ('24.3월) 42, (6월) 82, (9월) 65, (10월) 32

- 올해 무역수지는 1~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5위를 기록하며 선전

* 역대 무역수지 순위(억 달러, 1~10월 누계) : ('17) 819, ('16) 743, ('15) 731, ('18) 609, ('24) 395, ('14) 362

2. 올해 한국 수출을 빛낸 10대 품목

▶ 수출 3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 품목 중 성장세가 강한 올해의 수출 10대 품목 선정

- 주얼리, 압연기, 변압기 등은 해외수요 증가 및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어 전체 수출증가율(9.0%)을 크게 상회하며 수출 견인
- 디지털 전환(AI, 데이터센터)으로 전자부품 수출이 늘고, K-푸드(김, 라면)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수출이 증가

2024년 한국무역을 빛낸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불, 전년동기비%)

순위	품목명	2024.1~10월			수출 호조 요인
		수출액	수출 증가율	주요 수출대상국 및 증가율	
1	주얼리	1,262	159.6	홍콩(1,129.5), 미국(67.5)	글로벌 시장 성장과 우수한 세공기술
2	전산기록매체	8,317	88.5	미국(215.6), 홍콩(128.3)	AI 서버용 고성능 SSD 수요확대와 가격회복이 주 요인
3	압연기	403	56.2	미국(172.7), 캐나다(11,953.5)	금속성형기계로, IRA·CHIPS 시행 후 북미 내 공장 증설로 수요 확대
4	변압기	1,831	54.0	미국(85.3), 영국(135.6)	북미 전력망 교체 및 데이터센터 확충 수요, 유럽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를 위한 변전소 증설
5	집적회로반도체	110,245	47.8	중국(30.7), 홍콩(61.7)	AI 서버, 자율주행, 전기차, 5G·IoT 확산으로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
6	하이브리드 자동차	9,330	47.5	미국(47.1), 호주(628.3), 영국(27.9)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인프라 제약으로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
7	김	363	39.5	일본(57.1), 태국(47.4)	우수한 생산능력과 품질경쟁력, 한식 인지도 상승, 일본 생산량 감소에 따른 김 가격 상승
8	면류	1,224	25.4	미국(40.4), 중국(18.1), 네덜란드(51.7)	라면이 80% 이상으로, K-콘텐츠 확산, SNS 마케팅, 현지화 전략으로 판매 증가
9	접속기 및 차단기	1,251	24.4	사우디아라비아(80.1), 미국(13.1), 베트남(38.1)	사우디 내 도시개발에 따른 전력인프라 확충, 북미 전력망 교체 및 데이터센터 확충 수요, 베트남의 전력인프라 확충
10	전선	2,120	23.2	미국(-10.6), 중국(0.2), 베트남(20.8), 네덜란드(594.6)	베트남의 전력인프라 확충, 유럽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를 위한 변전소 증설

주 : 순위는 '24.1~10월 기준 수출 증가율 순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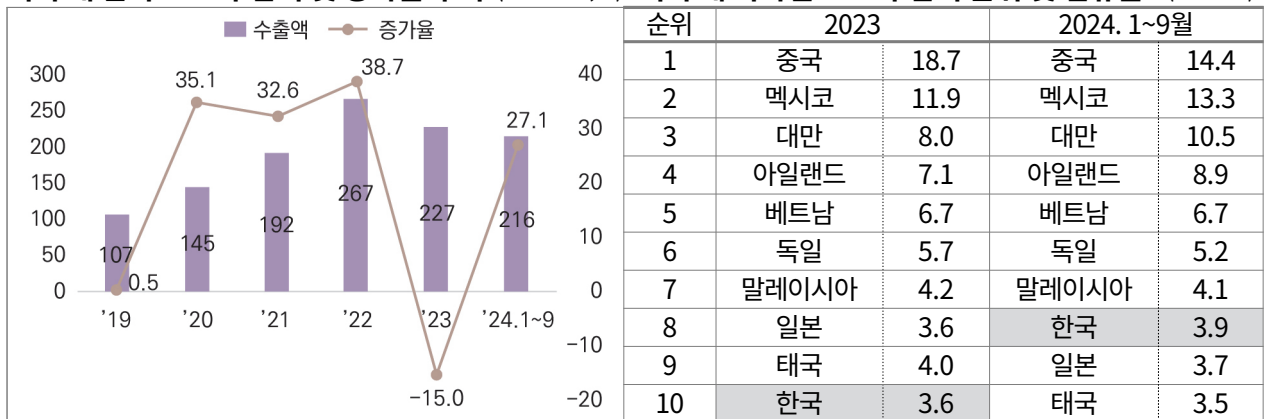
3. 첨단제품의 수출 약진을 통한 무역의 질적 개선

▶ 미국 내 한국의 하이테크 제품(ATP)¹⁾이 선전하면서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가 전년대비 2계단 상승

- 2024년 9월까지 미국의 한국산 하이테크 수입액은 216억 달러로, 2023년 감소(-15.0%)세에서 27.1%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점유율도 상승하며 일본과 태국을 제치고 8위에 부상

- 미국 시장에서 한국 하이테크 제품의 성장세(27.1%)와 점유율 순위 상승(10위→8위)은 우리 무역이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

미국 내 한국 ATP 수입액 및 증가율 추이 (단위:억불,%) 미국 내 국가별 ATP 수입액 순위 및 점유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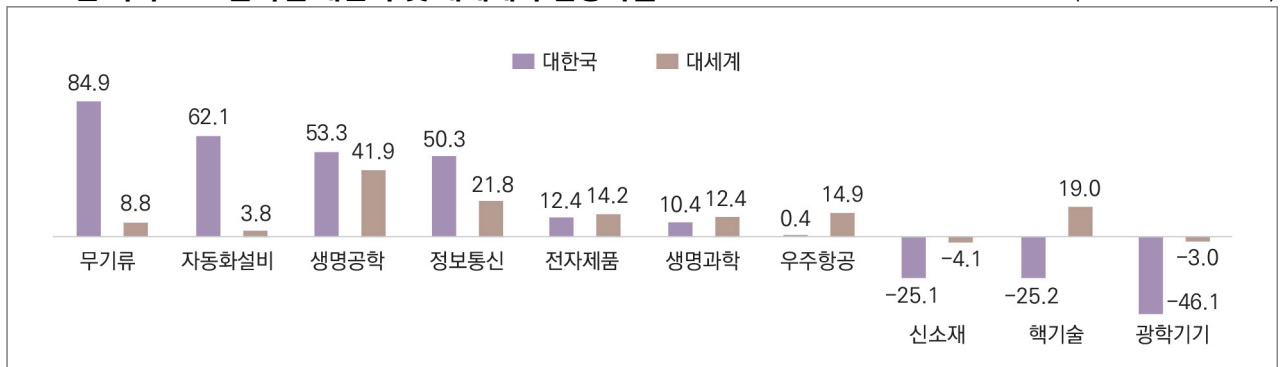
주 : 美 인구조사국 ATP 무역코드를 이용해 저자 계산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주 : 美 인구조사국 ATP 무역코드를 이용해 저자 계산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품목별로는 무기류(84.9% ↑), 자동화설비(62.1% ↑), 생명과학(53.3% ↑), 정보통신(50.3% ↑)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자동화설비는 IRA·CHIPS 법 시행 후 반도체 제조장비, 공작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점유율(5.2→7.6%)과 순위(7→5위)가 동시에 상승
- 생명공학 분야는 FDA 승인 의약품 증가로 점유율(2.7→3.2%) 및 순위(10→8위) 상승

2024년 미국 ATP 품목별 대한국 및 대세계 수입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주 : 2024. 1~9월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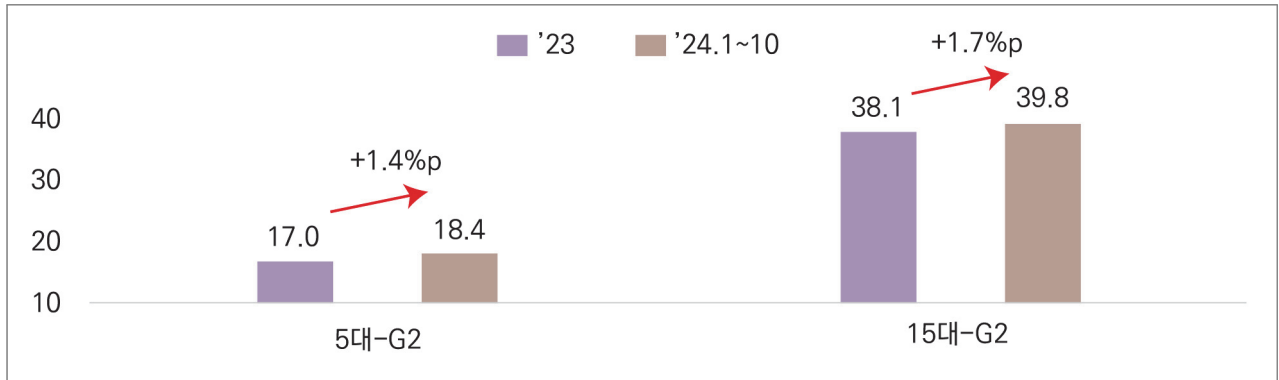
1) ATP는 첨단기술제품(Advanced Technology Product)의 약자로, 생명공학, 정보통신, 전자제품 등 미국 기준 10대 첨단기술 제품군을 의미

4. 신흥시장 수출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진전

- ▶ 중국·미국 중심의 수출구조 개선을 목표로 신흥시장 개척에 주력한 결과, 아세안(5.2% ↑)과 남미공동시장(18.4% ↑) 등 신흥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달성
- 우리의 5대 및 15대 수출대상국 중 G2(중국·미국)를 제외한 수출비중이 전년비 상승하며 수출시장 편중도가 개선
 - 15대 수출국의 비중 상승폭(1.7%p)이 5대 수출국(1.4%p)보다 커, 수출시장 다변화가 뚜렷

5대·15대 수출국 중 G2 외 국가 수출비중

(단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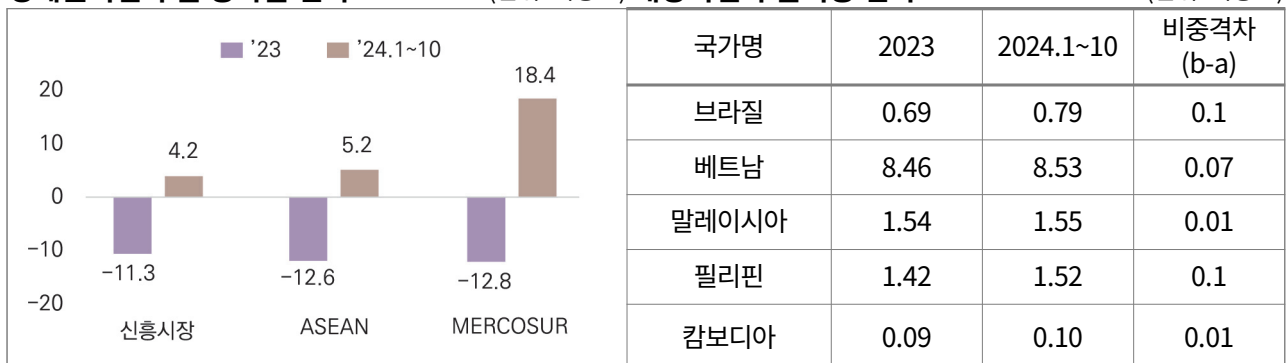
주: 각각 해당연도의 5대 및 15대 대상국 중 중국·미국을 제외한 수출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특히 아세안(ASEAN, 5.2% ↑), 남미공동시장(MERCOSUR, 18.4% ↑)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아세안은 캄보디아(13.3%), 필리핀(12.3%), 말레이시아(11.3%), 베트남(9.8%)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수출 비중이 상승
 - 남미공동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브라질은 메모리반도체(112.8%)와 프로세서(52.1%) 호조에 힘입어 수출 비중이 0.1%p 상승

경제권역별 수출 증가율 변화

(단위: 비중%) 대상국별 수출비중 변화

(단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5. 세계 무역 강국 입지 강화

▶ 수출 호조세로 세계 6위 달성, 실질적인 글로벌 5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

- 2024년 우리나라 전 세계 수출 순위가 2023년(8위) 대비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달성

- 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4위)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수출 5위로 부상

- 일본과의 격차는 2023년 850억 달러에서 2024년 118억 달러로 대폭 축소(1~9월 기준)

▶ 올해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

- 1~9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9.5%로, 홍콩(11.0%)을 제외한 국가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하며 세계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의 對세계 수출실적 비교(2024년 1~9월)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순위)

국가명	중국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네덜란드 (4위)	일본 (5위)	한국 (6위)	이탈리아 (7위)	프랑스 (8위)	멕시코 (9위)	홍콩 (10위)
수출액	26,233	15,471	12,925	6,809	5,202	5,083	5,029	4,833	4,557	4,295
증가율	(2.8)	(2.7)	(-0.5)	(-1.1)	(-1.9)	(9.5)	(-0.5)	(-1.7)	(3.2)	(11.0)
순위 변화	1 → 1	2 → 2	3 → 3	4 → 4	5 → 5	8 → 6	6 → 7	7 → 8	9 → 9	12 → 10

주 : 순위변화는 '23년 대비 '24년 1~9월 순위 변동

자료 : CEIC

▶ 2024년 2분기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83%로 전년동기대비 0.20%p 상승하여 수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

▶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주요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

- 중국(0.5%p), 캐나다(0.5%p), 미국(0.4%p) 등의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

주요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비%, 순위)

국가명	2023			2024.1~7월			비중변화 (B-A, %p)
	대세계 수입	대한국 수입	비중(A)	대세계 수입	대한국 수입	비중(B)	
미국	30,841	1,162	3.8	18,557	787	4.2	0.4
중국	25,636	1,625	6.3	14,885	1,015	6.8	0.5
독일	14,625	112	0.8	8,408	65	0.8	0.0
네덜란드	8,432	80	0.9	4,658	46	1.0	0.1
일본	7,856	310	3.9	4,249	175	4.1	0.2
홍콩	6,555	289	4.4	3,909	222	5.7	1.3
멕시코	6,344	207	3.3	3,813	134	3.5	0.2
캐나다	5,905	108	1.8	3,426	78	2.3	0.5

자료 : IMF

6.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

▶ 수출이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주도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음

-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로 미국(2.8%)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을 상회
* 2024년 주요국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 , IMF) : (미국) 2.8 (한국) 2.5 (독일) 0.0 (일본) 0.3
- 1~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3%를 기록한 가운데, 상품·서비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2.3%p에 달해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수출이 기여

▶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이 수출기업의 높은 임금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민간소비 증가로 연결되며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하고 있음

-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2024년 1~10월 중 1,150억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며, 전년동기 대비 47.2%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 2024년 1~7월,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694만원으로 전산업 평균(407만원)보다 70.6%, 제조업 평균(472만원)보다 47.0% 높음

2024년 전자 부품 제조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1~7월)

(단위 : 천원)

	1'2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7월 평균
전체	4,289	4,351	4,010	3,866	3,823	3,861	4,257	4,065
제조업	5,262	5,003	4,532	4,470	4,326	4,377	5,059	4,718
전자부품	11,176	6,669	5,862	6,297	5,839	5,782	6,915	6,943

자료 : 고용노동부

- 2024년 3분기 실질GDP 중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비 1.3% 증가하여 점차 개선되는 모습
* 2024년 GDP 민간소비 (% , 전년동기비) : (1Q) 1.0 (2Q) 0.9 (3Q) 1.3 (한국은행)

▶ 서비스수지의 만성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가 전체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

-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서비스수지는 월평균 18.8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상품수지는 동기간 월평균 7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경상수지 흑자(67억 달러)를 뒷받침

2024년 국제수지 현황(1~8월)

(단위 : 백만달러)

국제수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8월 평균
경상수지	3,046	6,858	6,931	-285	8,923	12,564	8,966	6,595	6,700
상품수지	4,240	6,608	8,093	5,111	8,752	11,742	8,329	6,594	7,433
서비스수지	-2,657	-1,773	-2,431	-1,664	-1,286	-1,597	-2,378	-1,232	-1,877

자료 : 한국은행